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신약 시대의 시민권이라는 말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비시민권자와 여러 다른 특권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 즉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천국 시민은 예수님을 함께 닮아갑니다.(17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뜻대로 삼고 따라가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목표로 삼고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집중하여 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열쇠입니다.

둘째, 천국 시민은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18, 19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대상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욕심을 따라 살고,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의 눈물이 생깁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셋째, 천국 시민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다림입니다. 기도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깨달음과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 구원의 완성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본문(20, 21절)의 바울은 천국 시민으로써 자기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할 것과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옥 한가운데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3/15(월)	3/16(화)	3/17(수)	3/18(목)	3/19(금)	3/20(토)	3/21(주일)
신 11-12장	신 13-15장	신 16-18장	신 19-21장	신 22-24장	신 25-28장	신 29-30장

QT

이번 주 QT 말씀

3/15(월)	3/16(화)	3/17(수)	3/18(목)	3/19(금)	3/20(토)	3/21(주일)
마 23:13-24	마 23:25-39	마 24:1-14	마 24:15-28	마 24:29-35	마 24:36-51	마 25:1-13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2. 나에게 믿음의 본이 된(예수님을 보여준) 성도님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3. 죄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4. 자신이 예수님이 오실 날에 대한 기다림이 약해 졌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